

AUTHOR 김성룡

TITLE 영국의 종교개혁과 부르주아 가족의 변화

IN 진리와 학문의 세계
5권 (가을, 2001): 59-76.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 마태복음 16장:18절 -

영국의 종교 개혁과 부르주아 가족의 변화

김성룡(문학박사)

1. 머리말
2. 가부장 중심의 핵가족
3. 신성한 혼인의 강조
4. 가족에 대한 응집력 부여
5. 소유적 개인주의의 확립
6. 맺음말

1. 머리말

영국의 가족사(family history) 연구는 역사 인구학(historical demography)의 성과를 배경으로 하여 현재 팔목할 만한 발전과 변모를 거듭하고 있다.¹⁾ 그것의 성과들이 종래와는 달리 가족사 연구에 신뢰할 만한 통계 자료들을 뒷받침하여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또한 과거의 연구들이 수정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예의 대표적인 것으로 산업화(industrialization)가 핵가족(nuclear family)을 가져왔다는 종래의 설명이 부정된 것들을 수 있다. 1960년대 초반까지 산업화와 관련된 가족 형태의 변화에 관해서는 19세기 후반에 엥겔스(Friedrich Engels)나 르플레(Pierre G.F. Le Play) 등에 의해 이미 제기되었던 '산업화 = 핵가족화'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²⁾ 즉 ① 산업화 이전 시기에는 한 지붕 아래에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확대 가족(the extended family)이 가족 형태의 주류였으며 ② 그것이 산업혁명(the Industrial Revolution)을 기점으로 부부 중심의 핵가족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³⁾

- 1) 김성룡, '영국 역사 인구학의 성과와 과제', *大丘史學* 第44輯 (1992), pp. 107-40.
- 2) Peter Laslett, 'Introduction', in Peter Laslett and Richard Wall(eds.), *Household and Family in Past tim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2), pp. 6-7.
- 3) Lawrence Stone, 'Family History in the 1980s: Past Achievements and Future Trends', in Theodore K. Rabb and Robert I. Rotberg(eds.), *The New History: the 1980s and Beyon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2), p. 53.

그러나 이른바 '선 산업 사회 확대 가족설'은 1960년대 초반 이후 수정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라슬레(Peter Laslett)의 업적이 단연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라슬레도 1950년대 말까지는 선 산업 사회 확대 가족설을 믿고 있었다. 그러나 1959년 가을, 워싱턴(Washington)의 폴거 셰익스피어 도서관(Folger Shakespeare Library)에서 우연히 1911년에 그릴(H. Grill)과 귄포드(E.L. Guilford)가 편집한 『노팅엄셔(Nottinghamshire) 클레이워스(Clayworth) 전도구(parish) 목사의 실태 조사서』(*The Rector's Book of Clayworth, Nottinghamshire*)를 접한 후 그의 견해를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1676년 3월 27일-1701년 3월 8일까지 샘슨(William Sampson) 목사가 작성한 거주자 실태 조사의 내용이 이전까지 필머경(Sir Robert Filmer)의 저작과 같은 개인적 저술에 바탕을 둔 라슬레의 연구와는 상반되었기 때문이었다.⁴⁾

그 후 4년이 지난 1963년에 그는 해리슨(J. Harrison)과 함께 1676년과 1688년의 클레이워스의 『거주자 명부』(*Listings of Inhabitants*)와 노샘프턴(Northampton)에 인접한 쿡노에(Cogenhoe)의 『1618-1628년 거주자 명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정된 지역이지만, 그 논문은 종래의 견해와는 달리 ① 클레이워스에서는 17세기에 핵가족이 전체 가족의 약 80%를 차지했고, 약 1/3의 가구(household)에서 1-2명의 서번트(servants)를 고용하고 있었으며 ② 클레이워스와 쿡노에에서는 약 10년 사이에 전체 거주자의 반 이상(클레이워스: 약 62%, 쿡노에: 약 52%)이 주로 인구의 전입과 전출로 교체되었다는

4) 김성룡, '근세 영국의 서번트(servants)와 그 역사상', *大丘史學* 第48輯 (1994), pp. 148-9.

사실을 제시했다.⁵⁾

그러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라슬레는 1965년에 그의 대표적 인 저서 『우리가 잃어버린 세계』(The World we Have Lost)를 출간했다. 1959년에 새로운 자료가 발견됨에 따라 작업이 중단된 후 6년만에 간행된 그 책에서 그는 산업화 이전 시기 영국에서는 서번트의 고용을 특징으로 하는 핵가족이 근본적인 가족 형태였으며, 그 사회는 젠트리(gentry)가 이끌어 가는 '단일 계급 사회'(one class society)였다고 주장했다.⁶⁾

한편 헤이날(John Hajnal)은 『우리가 잃어버린 세계』가 출간된 1965년에 북서 유럽의 혼인 양태(marriage pattern)에 관한 획기적인 사실을 발표했다. 그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16세기 이후 북서 유럽에서는 ① 남녀 모두 만혼, 특히 여성의 경우 대체로 24세 이후에 혼인을 하고 ② 상당수가 독신으로 지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⁷⁾ 핵가족의 보편적 존재에서 북서 유럽의 혼인 양태가 나타났다는 것을 분명히 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헤이날의 성과는 독립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혼인이 가능했다는 실명을 제시하여 가족 형태에 관한 후속 연구를 자극했다.

헤이날의 연구 이후, 라슬레는 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최소한 16세기 이후부터 핵가족이 영국의 보편적인 가족 형태였다는

- 5) Peter Laslett and John Harrison, 'Clayworth and Cogenhoe', in H.E. Bell and R.L. Ollard(eds.), Historical essays, 1600-1750 presented to David Ogg (London: Black, 1963), pp. 157-84.5
- 6) Peter Laslett, The World we have lost (New York: Charles Schibner's Sons, 2nd edn., 1973(1965)), pp. 23-4.
- 7) John Hajnal, 'European Marriage Patterns in Perspective', in D.V. Glass and D.E.C. Eversley(eds.), Population in History (Surry: Edward Arnold, repr., 1974(1965)), pp. 101-43.

사실을 제시했다. 즉 1969년에 케임브리지(Cambridge)에서 열린 가구 구조에 관한 국제 학술 회의에서 100개 전도구의 거주자 명부를 분석한 결과 1574-1821년에 ① 한 가구의 평균 성원은 4.75명이었고 ② 전체 가구의 약 30%가 1-2명의 서번트를 고용하고 있었으며 ③ 서번트가 전체 성원의 약 13.4%를 집했다는 사실을 제시했던 것이다.⁸⁾

계속해서 그는 '컴퓨터 마이크로시뮬레이션'(computer microsimulation)이라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개발하는 한편,⁹⁾ '선 산업 사회 핵가족설'을 뒷받침하는 실증적인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그 과정에서 '삶의 과정으로서의 서번트'(life-cycle servant)가 발견된 것이 특기할 만하다. 1976년, 라슬레는 서번트 생활이 대부분의 혼전 청년들이 거처가는 하나의 삶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즉 부모의 집을 떠나 다른 가구에 고용되어 보낸 서번트 생활이 대체로 14-25 세에 해당하는 청년들의 대다수가 혼인할 때까지 거처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¹⁰⁾

이처럼 최근 영국의 가족사 연구는 '산업화 = 핵가족화'라는 종래의 인식에 심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소한 16세기 이후 핵가족이 대표적인 가족 형태였음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

- 8) Peter Laslett, 'Size and structure of the household in England since the sixteenth century', Population Studies, 32 (1969), pp. 199-233.
- 9) Kenneth W. Wachter, Eugene A. Hammel and Peter Laslett, Statistical Studies of Historical Social Structure (New York: Academic Press, 1978), pp. 65-88.
- 10) Peter Laslett, Family life and illicit love in earlier generations: Essays in historical sociology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printed with corrections, 1980(1977)), p. 34. 근세 영국의 청년들이 보낸 서번트 생활 및 그 개념 등에 관해서는 김성룡, '근세 영국의 서번트(servants)와 그 역사상', pp. 148-85 참조.

이다. 바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당시 영국의 가족 형태에 16세기에 일어난 종교 개혁(the Reformation)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물음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영국의 종교 개혁이 개인 혹은 사회에 미친 영향력의 한 단면을 파악할 수 있는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당시 영국의 가족 형태에 미친 종교 개혁의 영향력을 구명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것을 위해 부르주아(Bourgeoisie)의¹¹⁾ 가족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들이 당시 영국 사회의 주도층이었다는 사실과 전체 계층을 다루기에는 지면의 제약이나 기타 현실적인 어려움 등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논의의 순서는 ① 16세기 영국의 부르주아 가족은 어떠한 형태 혹은 특성을 나타냈으며 ② 그것에 미친 종교 개혁의 영향은 무엇이었는데 초점을 두고 전개될 것이다.

2. 가부장 중심의 핵가족

16세기 영국의 부르주아 가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톤(Lawrence Stone)의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1500-1800년의 영국에 나타난 세계관 및 가치 체계의 변화와 그 원인을 가족이라는 소우주를 통해 검증하고자 했다. 그것이 바로 1977년에 출판된 『1500-1800년 영국의 가족, 성 그리고 혼

11) 본고에서 사용하는 부르주아는 토지 소유나 상인 자본가 등에서 형성된 계층을 의미하는 용어로 한정하고자 한다. 근세 영국의 사회 계층에 관해서는 吳主煥, 『英國近代社會研究』 (대구: 慶北大學校 出版部, 1992) 참조.

인』(*The Family, Sex and Marriage, 1500-1800*)이다.¹²⁾

스톤의 연구는 1970년대 중반 이후 가족의 내면적 삶에 관한 연구가 수행됨에 따라 고조된 집단 의식 구조, 이른바 '망탈리테'(mentalité)의 변화에 대한 관심의 반향으로 여겨질 수 있다.¹³⁾ 그는 다소 시간은 중첩되지만 대체로 16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영국의 가족 형태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이른바 개방적 가계 중시 가족(open lineage family, 1450-1630년) → 제한적 가부장적 핵가족(restricted patriarchal nuclear family, 1550-1700년)이 바로 그것이다.

스톤의 연구는 가족 형태 변화의 외형적인 면뿐만 아니라 그 내면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는 데서 많은 의의를 지닌다. 물론 거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에 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가족이 자본주의에 의해 변화했다는 전제에서 젠트리(gentry)가 그 주된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는 데서 상당 부분 기인했다.¹⁴⁾ 바로 그 점이 각별히 주목되는 부분이다. 본고의 분석 대상이 대체로 상층부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종교 개혁이 발발한 16세기에 영국의 부르주아 가족의

12) Lawrence Stone, *The Family, Sex and Marriage in England 1500-1800* (New York: Harper & Row, 1977).

13) 망탈리테에 관한 국내 연구는 ① 이시재, '필립 아리에스의 심성사 연구', 한국사회사연구논문집 제10집 (1988), pp. 54-77 ② 金貞子, "망탈리테(mentalité)史의 可能性과 限界點 - 英國마르크스주의 社會史家들의 批判的 論議을 中心으로 -", 西洋史論 第31號 (1988), pp. 45-80 참조.

14) 실제로 800여 쪽에 달하는 그 책의 분량 가운데 젠트리를 제외한 계층은 105여 쪽에 불과하다; 吳主煥, '서평: *The Family, Sex and Marriage in England 1500-1800* (by Lawrence Stone)', 慶北史學 第二輯 (1980), p. 169.

형태와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당시 영국의 상층부 가족은 개방적 가계 중시 가족에서 제한적 가부장적 핵가족으로 변하고 있었다. 전통적 대가족인 개방적 가계 중시 가족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① 친족 공동체와 같은 외부적 이해 관계에 가족 생활이 개방되고 ② 가족들은 가문을 중시하고 친족의 의사를 충실하게 실행했던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¹⁵⁾

개방적 가계 중시 가족에서는 한마디로 개인이 그리 중시되지 못 했다. 결혼도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가문의 정치·경제적 이익에 특히 좌우되었다.¹⁶⁾ 결혼은 개인의 관심보다는 가족의 관심에 따라 이루어졌고 사랑과 성관계는 결혼 생활밖에서 남자들에 의해서만 추구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의 깊은 유대가 형성될 여지가 그리 많지 않았다. 합법적인 중매 결혼이 이율배반적으로 비합법적인 정부 관계를 필요로 한 것도 그와 같은 배경에서 비롯했던 것이다.

자녀의 양육도 마찬가지였다. 태어난 직후부터 약 4개월 정도 강보에 싸여(swaddling) 유모에 의해 양육되었다.¹⁷⁾ 또한 자녀의 결혼 지참금(dowery) 때문에 재산을 축내지 않기 위해 수녀가 되게 한 경우도 있었다.¹⁸⁾

그러나 개방적 가족은 1530년대를 기점으로 변해갔다. 제한적 가부장적 핵가족의 출현이 바로 그것이다. 그것은 그 시대적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바꾸어 말하면 토지를 바탕으로

15) Stone, *The Family, Sex and Marriage in England*, p. 4.

16) Christopher Hill, *The Century of Revolution, 1603-1714* (London: Nelson, 1961), p. 253.

17) Stone, *The Family, Sex and Marriage*, pp. 164-4.

18) 수녀원이 많았던 이유의 하나였다. 거기에 가톨릭의 정절은 신학적 도덕적 배경이 될 수 있었다: 吳主煥, '서평: *The Family, Sex and Marriage*', p. 161.

하는 봉건 사회의 해체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당시 영국에서는 친족, 후원 관계 그리고 지역 공동체 등이 점차 힘을 잃어갔다. 국민 국가의 수립으로 지방 분권적인 정치 형태가 중앙 집권적으로 변해갔기 때문이다. 자연, 지역에서 국가로 그리고 친족에서 부부 중심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옮겨지게 되었다.¹⁹⁾

그러면 제한적 가부장적 핵가족은 과연 어떠한 특성을 나타냈을까? 그것은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가족의 '범위 인식'(boundary awareness)이 분명해졌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개방적 가족에는 친족까지 포함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가 모호했다. 그러나 가부장적 가족은 달랐다. 그것이 부부와 그들의 자녀들로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사촌들은 감정적으로나 혹은 경제적으로 별다른 중요성이 없다'는 17세기의 한 일기 기록이 그것을 잘 나타낸다.²⁰⁾ 가족 성원의 결속을 위해 부부의 유대가 강조된 것도 바로 그와 같은 배경에서 비롯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가부장의 권위가 강조되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²¹⁾ 당시 부르주아는 이기심과 공격성을 인간 본성의 일부로 생각했다. 그 결과 새로운 질서가 모색되었고 그것은 가족의 위계 조직과 엄격한 통제로 나타났다. 그들은 사회는 개인이 아니라 가족으로 구성되었으며 결코 해체될 수 없는 세포라고 여겼

19) Stone, *The Family, Sex and Marriage*, p. 134.

20) A. Macfarlane, *Family Life of Ralph Jossel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pp. 137-9.

21) 가장만이 집에서 모자를 쓸 수 있었다: Eli Zaretsky, *Capitalism, the Family and the Personal Life* (New York: Harper and Row, 1976), 김정희(울김), 『자본주의와 가족제도』 (서울: 한마당, 1979), p. 45.

다. 바꾸어 말하면 부르주아는 가족이 사회 질서의 기본 단위이며 사회적 권위의 최하위로 여겼던 것이다.

그러한 변화는 가부장의 권리와 신앙적 의무를 강조했다. 가정이 기본 단위이면 그것을 통제하는 가정의 권리는 바로 가부장의 권력 주권을 의미했던 것이다. '가정에서 가정에 대한 순종은 국가에 있어서 군주에 대한 순종'으로 이해되는 것이 그것을 잘 나타낸다. '군주는 가장과 같다. 군주는 인민의 국부이기 때문이다'라는 제임스 1세(Jams I)의 언급도 그것을 잘 나타낸다.²²⁾

뿐만 아니라 개인적 권리 → 가부장의 권리 주권은 가족의 또 다른 기능을 강화시켰다. 이른바 사회적 · 종교적 기능의 강화가 바로 그것이다. 가정에서 신앙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이를 두고 활발한 논의도 이루어졌다.²³⁾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국왕을 위해 싸우는 것이 첫 번째 의무라는 것'을 강조한 바우즈(George Bowes)의 1603년 언급이 그것을 잘 나타낸다.²⁴⁾

3. 신성한 혼인의 강조

가부장 중심의 핵가족은 1550-1640년에 보편화되었지만, 그 기원은 15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바로 그 점이 주목되는 사실이다. 그 시기에 영국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가부장 중심의 핵가족이 대두한 배경은 칼뱅 사

22) Stone, The Family, Sex and Marriage, p. 152.

23) Zaretsky, Capitalism, the Family and the Personal Life, 김정희(옮김), 『자본주의와 가족제도』, p. 49.

24) Stone, The Family, Sex and Marriage, p. 134.

상이었다.

종교 개혁은 가톨릭의 이상이었던 정결을 대신하여 혼인을 신성하게 인식하도록 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가톨릭 교회는 가족 생활을 지옥보다 한 단계 나은 대안으로 마지못해 인정했으며 성직자에게는 결혼 생활을 금지시켰다. 성직자의 결혼은 종교 개혁 시기의 중요한 쟁점이었다.²⁵⁾ '결혼은 인간의 것이요 독신은 천사의 것이다'라는 당대의 가톨릭 추기경인 벨라마인(Cardinal Bellarmine)의 언급이 그것을 잘 나타낸다.²⁶⁾

그러나 종교 개혁 이후 사정은 달라졌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는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생활을 긍정하면서 결혼 생활을 흔쾌히 수용했다. 또한 가족은 하나님께서 부여한 질서의 부분이라는 생각을 고양시켰다. 뿐만 아니라 성관계와 감정의 표현도 결혼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한 고무되었다.²⁷⁾ '독신보다 기혼 상태가 훨씬 좋다'는 17세기 초의 개신교 설교자인 퍼킨(William Perkin)의 언급이 그것을 잘 나타낸다.²⁸⁾

이처럼 영국의 부르주아 가족은 종교 개혁 이후 혼인에 신성함을 부여했다. ① '신성한 혼인'(holy matrimony)이 기독교 신자의 덕목으로 강조되었고 ② 성생활도 죄의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것으로 승화되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다.²⁹⁾

25) Zaretsky, Capitalism, the Family and the Personal Life, 김정희(옮김), 『자본주의와 가족제도』, p. 44.

26) Stone, The Family, Sex and Marriage, p. 135.

27) Zaretsky, Capitalism, the Family and the Personal Life, 김정희(옮김), 『자본주의와 가족제도』, p. 44.

28) Stone, The Family, Sex and Marriage, p. 135.

29) Lawrence Stone, The Crisis of the Aristocracy, 1558-1641 (New York: Harper & Row, 1967), pp. 298-301; Zaretsky, Capitalism, the Family and the Personal Life, 김정희(옮김), 『자본주의와 가족제도』, p. 45.

4. 가족에 대한 응집력 부여

종교 개혁은 가족에 대한 응집력을 가정 생활을 통해 강조했다. 이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당시 설교와 출판물들은 그것을 널리 주장했다. 그것은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부부 관계와 ② 자녀 양육이 바로 그것이다.

영국의 종교 개혁을 주도한 한 인물이었던 크랜머(Thomas Cranmer)는 전통적인 혼인의 의미에 새로운 것을 추가했다. 즉 1549년에 작성된 그의 기도서에 간음의 방지와 합법적인 자녀의 출산에 공동의 유익이라는 혼인의 의미가 더해진 것이다.³⁰⁾

그러한 변화는 칼뱅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칼뱅이 지배한 제네바(Geneva)는 남성 우위의 사회였다. 그러나 그는 애정이 결합된 혼인을 강조했다. 또한 칼뱅은 찬송을 부를 때 여성의 참여를 강조했고 아내의 구타를 혐오했다.³¹⁾ 바로 그러한 사상이 영국에서도 수용되었다. 가부장의 권위는 여전히 강조되었지만, 애정을 바탕으로 하는 결혼이 신성시되었기 때문이다. '사랑하지 못한 부부는 서로에게 나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 하는 것이다'라는 워즈워스(Benjamin Wadsworth)의 언급이 그것을 잘 나타낸다.³²⁾

30) W. Gouge, *Of Domesticall Duties* (London, 1634), Treatise 2, Sects. 8, 9.

31) N.Z. Davis, 'City Women and Religious Change in Sixteenth Century France', in D.G. McGuigan(ed.), *A Sampler of Women's Studies* (Ann Arbor, 1973), pp. 33-6 quoted in Stone, *The Family, Sex and Marriage*, p. 136.

32) Stone, *The Family, Sex and Marriage*, pp. 135-6.

그러한 변화는 부부 관계의 조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여성의 가사 노동은 남편들의 숙련 기술이나 직업에 비유될 수 있는 '소명' 받은 특별한 천직이었다. 부부 관계의 조화는 1598년에 클레버(Robert Cleaver)의 저술에서도 잘 나타난다. 청교도 생활에 대한 소책자인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정 관리 형식』(*A Godly Form of Household Government*)에 언급된 다음의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그녀(아내)는 흡사 판사처럼 남편이 집안 살림을 다스리는 것을 보조해 주었다. 그녀는 허드레 일에 빠져들지 않았고 하인처럼 명령받지 않았으나 그녀의 남편은 '영혼이 육체를 명령하듯' 그들의 상호 조화에 의해 그녀를 지배했다.³³⁾

한편 종교 개혁은 도덕적 그리고 종교적 통제를 위해 가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제 영국의 부르주아 가족은 그들의 자녀의 양육과 사회화에 신앙을 중시했다. 주일 예배의 참석은 의무였다. 가정의 기도회도 강조되었다. 혼인 설교는 '절대로 가정에서 기도회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것을 부부에게 권면했다. 신실한 가족의 경우 그 성원 사이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가 행해지기도 했다. 성경이 보급되어 가정에서 통독되었다. '가장은 그의 집에 교회를 가져야 한다'는 코드레이(Robert Cawdrey)의 1562년 언급이 그것을 잘 나타낸다.³⁴⁾

33) Zaretsky, *Capitalism, the Family and the Personal Life*, 김정희(옮김), 『자본주의와 가족제도』, pp. 50-1.

34) Stone, *The Family, Sex and Marriage*, p. 136.

5. 소유적 개인주의의 확립

당시 가족의 변화는 영국 사회에서 소유적 개인주의의 확립에 많은 기여를 했다. 16세기 이래 영국에서는 시장 경제가 발전하고 있었다. 노동과 경제 활동에 대한 관점, 즉 사유 재산과 생산 노동에 대한 새로운 가치 부여는 로크(John Locke)의 다음 언급에서 잘 나타난다.

우리는 하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났다. 즉 세상에 태어난 우리라는 존재는 먹고 마시고 옷을 입어야 하며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측, 배려, 노동에 의해서만 얻어지고 유지되는 여러 가지의 필수적인 생활 자료를 가져야만 한다.³⁵⁾

로크의 견해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자연이 제공한 상태에서 인간이 무엇을 제거하고 무엇을 남겨 놓는 사이에 그는 그의 노동을 자연과 결합시키며 ② 그 자연은 인간의 소유물로 변하기 때문에 가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개인 의식, 개인의 자율 그리고 신성한

35) Sheldon Wolin, *Politics and vision: continuity and innovation in western political thought* (Boston, Mass.: Little Brown, 1960), p. 298.

혼인 등을 강조하는 개신교의 유산은 일종의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거기에 친족보다 가족을 중시하는 부르주아의 행동 양식이 결합되면서 이른바 '경제적 개인주의'(economic individualism)가 보다 확고하게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³⁶⁾

시장 관계가 발달함에 따라 개인을 고정된 사회적 지위와 동일시하는 관념은 독자적 노력을 바탕으로 성공 또는 몰락한 개인이라는 관념으로 변했다.³⁷⁾ 가족은 사회의 여타 부분과는 분리된 경쟁적인 경제 단위로 이해되었다. 부르주아는 중세 사회의 고정 관념을 허위적이라고 비난하고 경제적 자기 이익에 기초한 경쟁심을 자연스러운 사회의 토대로 보았다.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의 희곡들은 관습을 벗어나서 본연의 존재에 기초를 두고 있는 사랑, 결혼 개인적 자유에 대한 부르부아의 초기 이상들을 옹호하고 있다.³⁸⁾

이제 영적 생활과 경제적 생활을 분리시켜 생각했던 자본주의 이전 시기와 달리 생산과 가족이라는 세속적 세계에서도 인간의 의미와 목적이 추구되었다. 종교 개혁에 의해 끊임없이 유지되어온 종교적 교훈과 기도는 교회로부터 가정으로 옮겨졌다. 가족의 경제 생활은 영적 존재로 자리잡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36) 당시 영국에서 자아 의식의 팽배를 보여 주는 예로는 일기 문학의 급증, 긴 의자를 대신하는 개인 의자(chair)의 등장 그리고 자서전의 만연 등을 들 수 있다: Lionel Trilling, *Sincerity and Authenticit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2), p. 25.

37) 당시 영국의 소유적 개인주의에 대해서는 C.B. Macpherson, *The Political Theory of Possessive Individualism: Hobbes to Lock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참조.

38) 『리어왕』(King Lear)은 사회 질서에 대한 기존의 충성심은 도망가서 자신들의 삶을 사는 딸들의 개인주의와 충돌한다: Christopher Hill, *Society and Puritanism in Pre-Revolutionary England* (London: Secker and Warburg, 1964), pp. 462-3.

그러한 변화는 노동을 신성한 것으로 축복하게 되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라는 중세의 성구에 대해 칼뱅은 '하나님은 가게를 경건하게 관리하는 자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말로 답했다는 힐(Christopher Hill)의 언급은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가족에 의해 수행되는 노동을 신성한 것으로 축복하게 되었다는 잘 나타내고 있다.³⁹⁾

그러한 변화는 영국이 여타 국가에 비해 우위를 점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⁴⁰⁾ 시장 경제의 발달과 가족을 중시 여기는 사회 분위기는 보다 합리적인 생활로 이어져 보다 적극적인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게끔 했다는 것이다. 영국이 최초의 그리고 자생적으로 산업 혁명(the Industrial Revolution)을 수행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맺음말

최근의 가족사 연구는 역사 인구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과 변모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한 성과 가운데 각별하게 시선을 모으는 것은 이른바 선 산업 사회 확대 가족설에 대한 의문이다. 실제로 최초의 산업 국가인 영국의 경우 최소한 16세기 이후 부부 중심의 핵가족이 보편적인 가족 형태로 자리잡고 있었다. 본 연구는 바로 그와 같은 사실에서 출발했다. 영국의 종교 개혁이 16세기에 발발한 만큼 그것과 당시 가족 형태와 어떤 상관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의 주도층이었던 부르주아를 통해 분석한 그 결

39) Hill, Society and Puritanism, p. 449.

40) Stone, The Family, Sex and Marriage, p. 267-8.

과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체로 종교 개혁을 기점으로 영국의 부르주아 가족은 가부장의 권위가 강화된 핵가족 형태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종래의 대가족이 핵가족을 대신했던 것이다. 이는 지방 분권적인 통치 체제가 붕괴되면서 가족이 사회의 기본 단위로 인식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바로 여기에 종교 개혁은 가장의 권위에 중요 뒷받침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그 다음, 종교 개혁은 가족의 응집력을 부여하는 데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신성한 혼인과 자녀 양육에 가장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그 결과 이제 가정은 하나의 교회로 자리잡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변화는 부부 관계의 조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여성의 가사 노동은 남편들의 숙련 기술이나 직업에 비유될 수 있는 '소명' 받은 특별한 천직이었던 것이다.

끝으로, 종교 개혁은 영국에 소유적 개인주의의 확립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가정에서 신실한 신앙이 강조되면서 개인의 양심과 의식이 강조되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영국이 여타 국가에 비해 우위를 점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시장 경제의 발달과 가족을 중시 여기는 사회 분위기는 보다 합리적인 생활로 이어져 보다 적극적인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게끔 했다. 그것이 영국이 여타 유럽 국가에 비해 우위를 점한 원인(遠因)이었다는 견해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영국의 종교 개혁은, 물론 사회의 여타 분야도 많은 영향을 끼쳤겠지만, 당시 상승하는 부르주아의 가족이 변화하는 데 심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나아가 그것은 이후 유럽에서 영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하는 데 중요한 동인이었다는

것을 결론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 에베소서5장:31,32절 -

흐룽 판 프린스터러

(Groen van Prinsterer) 의 생애와 사상

성희찬 (Th.D.Cand)

1. 서론 : 왜 이 사람을 기억하는가?
2. 생애
3. <불신앙과 혁명>에 나타난 흐룽의 사상
4. 결론